

중국의  
역사만들기  
프로젝트

# 동북공정 바로알기

## 차례

1 끝나지 않은 역사 분쟁 – 우리는 왜 지금도 동북공정에 주목해야 하는가? 6

2 중국은 왜 동북공정을 추진했을까? 10

3 동북공정의 특성 12

4 중국의 주장, 그리고 우리의 입장

◎ 고조선사 문제 16

◎ 부여사 문제 20

◎ 고구려사 문제 22

◎ 발해사 문제 35

◎ 국경 문제 41

5 동북공정 관련 현재 상황 48

6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과 연구 결과물 52

7 동북공정 주요 일지 55

참고문헌 58

찾아보기 62

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  
专家委员会会议



끝나지 않은 역사 분쟁  
우리는 왜 지금도 동북공정에  
주목해야 하는가?

# 1

## 우리는 왜 지금도 동북공정에 주목해야 하는가?

**동북공정** \_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 2002년 2월 28일부터 5년간 시행한 연구 사업이다. 중국 동북 3성 지역(헤이룽장 성, 지린 성, 랴오닝 성)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그로 인해 파생되어 나온 현대사와 미래사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동** 북공정’은 사업시행 초기에 고구려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강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동북공정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고구려사 빼앗기 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고조선·발해의 역사까지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한 역사적 명분 마련을 위한 중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이런 점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中国与朝鲜年代对照表

中国	朝鲜	中国	朝鲜
新石器时代 (仰光文化) 7000-5000	原始土器时代	新石器时代 (大汶口文化) 7000-5000	新石器时代 (大汶口文化) 7000-5000
夏 2070-1600		夏 2070-1600	统一国家
商 1600-1046		商 1600-1046	统一国家
西周 1046-771		西周 1046-771	统一国家
春秋 771-476		春秋 771-476	统一国家
战国 476-221		战国 476-221	统一国家
秦 221-206		秦 221-206	统一国家
西汉 206-8		西汉 206-8	统一国家
东汉 8-220		东汉 8-220	统一国家
三国 220-280		三国 220-280	统一国家
西晋 280-316		西晋 280-316	统一国家
东晋 317-420		东晋 317-420	统一国家
南北朝 420-589		南北朝 420-589	统一国家
隋 581-618		隋 581-618	统一国家
唐 618-907		唐 618-907	统一国家
五代十国 907-960		五代十国 907-960	统一国家
宋 960-1127		宋 960-1127	统一国家
辽 907-1125		辽 907-1125	统一国家
金 1115-1234		金 1115-1234	统一国家
元 1206-1368		元 1206-1368	统一国家
明 1368-1644		明 1368-1644	统一国家
清 1644-1911		清 1644-1911	统一国家
中华民国 1911-1949		中华民国 1911-1949	统一国家
中华人民共和国 1949-至今		中华人民共和国 1949-至今	统一国家

● **뤼순박물관 전경과 조선도자관실에 걸려 있는 중국과 조선의 연대 대조표** ...> 고구려가 중국역사연표 안에 들어가 있다.


2004년 8월 한·중간 구두양해사항의 합의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북공정의 연구 성과들은 학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고구려·발해 유적지의 표지판이나 박물관의 안내문, 대학 교재 및 각종 도서에 동북공정식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이제 동북공정은 전문학자들의 영역을 벗어나 학생들과 일반 중국인들의 상식을 바꾸어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이에 2006년 9월과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구두양해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2007년 2월로 5년 계획의 동북공정은 외견상 종료되었다.

◎ 그러나 중국 최고위층의 구두약속과 5년간의 동북공정 연구지원 종료로 모

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난 것이 아니다. 역사학에서는 연구성과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발간된 연구물들은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상당기간 존속하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라고 보는 인식을 넓은 의미에서 ‘동북공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동북공정’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과거부터 서로 맞물려 전개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이제 관련 국가들은 사실에 바탕을 둔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고, 현재의 진실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왜곡에 대처하고 우리 역사를 지켜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동북공정의 목적과 주요 주장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우리의 대응 자세는 무엇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

중국은 왜 동북공정을  
추진했을까?

3

동북공정의 특성

# 2

## 중국은 왜 동북공정을 추진했을까?


동북 3성\_ 중국 동북쪽에 있는 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국적의 우리 동포들이 밀집해 있으며, 한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밀접한 지역이다.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5년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과 동북3성●이 연합해서 추진한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하나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무엇보다도 중국은 향후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역에 미칠 정치적·사회적 영향과 충격을 차단해서 동북지역을 안정화 시키고,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고 한다.
- ⊙ 이를 위해 중국은 국가주의 역사관, 특히 각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동북지역

에 적용하여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완결하려고 한다. 동시에 조선족이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 동요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

◎ 그리고 중국은 ‘부여사·고구려사·발해사 = 중국사’ 라는 논리를 일반화하여, ‘만주는 한민족의 고토故土’, ‘고조선사·부여·고구려·발해사 = 한국사’라는 한국의 역사인식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사이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 또한 ‘고조선사·부여사·고구려사·발해사 = 한국사’라는 논리가 지속될 경우, 몽골이 원사元史를,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가 서역사西域史를, 베트남이 진秦·한漢 시기 백월百越과 남월南越의 역사를 각각 자국사로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역사는 분열되고 일맥상통한 중국의 역사·민족·국가의 정립이 곤란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역사·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 민족국가의 역사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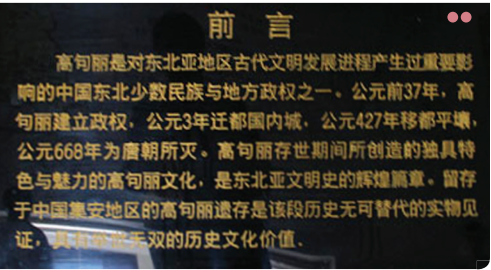
## 동북공정의 특성

‘**동**북공정’은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와 같은 단순한 ‘학술문제’의 차원을 넘어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와 직결된 전략문제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을 단순히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 프로젝트’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동북공정’에는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 및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이라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동북공정’은 우리 민족의 현재 및 미래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

- ◎ ‘동북공정’은 ‘현재’의 필요를 위해 과거의 이미지를 만들어 중화민족 국가의 권위를 내세우고, 국민



랴오닝 성 박물관 전경




- 전국시대 초기 지도에 표시된 중국의 영토 → 한반도 북부까지 차지한 것으로 표시
- 고구려가 중국 동북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임을 설명한 지안 박물관의 머릿돌(현재 이전 신축을 위해 휴관중)

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완수하려는 ‘이고위금’●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각 민족이 이루어낸 역사적 활동은 모두 중국사”라는 현재적 편의를 역사관,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은 당연히 중화민족이고 중국 민족”이라는 민족관, 근대 이후 형성된 ‘영토’ 개념이나 ‘국경’ 개념을 전근대 시기까지 소급하여 불분명했

이고위금(以古爲今) \_ 옛 것을 오늘의 거울로 삼는다는 뜻이다.

던 영역을 현재적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나눠버리는 영토관 등은 모두 ‘영토’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영토 지상주의’ 역사인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조공·책봉 관계를 근거로 조공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국가범주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인 ‘애국주의’, ‘중화민족 형성론’ 등의 ‘국가주의(중화 우월주의)’가 강하다는 점,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워 주변 민족국가의 역사·문화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북공정’의 논리 속에는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중심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중국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 ‘동북공정’의 역사적 논리는 주변 국가들과의 학문 교류나 관련 유물들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기초로 도출해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는, 현재 중국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역사적 논리는 관련 주변 민족국가로부터 역사적 당위성을 획득하기보다는 동북아 사회 특히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문화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4

중국의 주장,  
그리고 우리의 입장

## 고조선사 문제

중국의  
주장

고조선은 기자조선 → 위만조선  
→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사다



우리의  
입장

고조선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이룩한  
단군조선의 나라다




\*한사군(漢四郡) \_ 기원전 108~107년 고조선 땅에 설치된 중국 한나라의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을 총칭한다.

**중** 국학자 중 일부는 은나라의 왕족인 기자箕子가 옛 진국辰國으로 이주해 조선을 세웠고, 후에 주로 가서 신하의 예를 표했으므로 조선은 주의 제후국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으로 교체되며, 한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4군郡을 설치했으므로 고조선사는 중국사라고 한다.

◎ 그러나 기자조선은 문헌사료상으로는 고고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중국측 주장의 근거인 『상서대전(尙書大傳)』은 한나라 때에 편찬된 사서로, 그 이전 중국사서에는 기자에 관한 기록이 없다가 한 대에 갑자기 기자조선설이 나오게 된 것은 시대적 필요성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나라를 세웠다면, 물

질적인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요령과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중국과 다른 고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성격상으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은·주 때의 청동예기 등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 비파형동검\*<sup>그림</sup>·미송리식 토기·고인돌 같은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한 것은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단군조선이다. 후에 연나라에서 온 위만\*이 정권을 탈취했는데, 그것이 위만조선이다. 그런데 이 경우 고조선의 일부 지배층만 교체되었을 뿐 국가의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우거왕右渠王 때 조선상朝鮮相 노인路人, 역계경歷谿卿, 니계상尼谿相 참參 등과 같이 조선인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고위직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위만조선도 고조선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에서 신 조선인 위만조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군왕검의 조선을 고조선이라 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훗날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조선인 것도 우리가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의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위만(衛滿) \_ 중국 한나라 초 혼란을 피해 고조선의 서쪽 변방으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정권을 찬탈하여 위만조선 정권을 세운 사람이다.

\*그림 \_ 비파형동검



## 고조선사 문제

중국의  
주장

진 시황제의 장성은 대동강까지 이르렀다



우리의  
입장


중국 문헌과 유물을 통해  
장성은 요하까지만 축조된 것이 명백하다



**\*진 시황제** \_ 전국시대 진나라의 왕으로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다. 기원전 246년~210년까지 재위하였다.

**중** 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한 진 시황제\*가 축조한 장성이 북한의 청천강, 더 나아가 대동강 하구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중국 역사 교과서와 지도집에는 대동강까지 장성 표시를 해두었다. 이것은 고조선사는 중국사라고 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고조선의 영역범위를 축소시킨 심각한 역사왜곡이다.

◎ 진의 장성에 관한 가장 신뢰할만한 사료인 『사기』\*에는 진나라 장성의 동쪽 끝이 요동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기정의(史記正義)』에는 “요동군은 요하의 동쪽에 있는데, 진 시황제가 장성을 쌓아 동쪽

으로 요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여, 장성이 사실상 요하를 넘지 못하였다고 단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것은 장성 유적이 요하 서쪽의 부신<sup>阜新</sup> 지역까지는 명확히 나타나지만, 요하 동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연나라와 진나라가 축조한 장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령강 일대의 장성은, 최근의 조사 결과 고려 시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까지 장성을 표시한 중국교과서\*<sup>그림</sup>는 수정되어야 한다. 

\*사기(史記) \_ 한 무제 때의 궁중사자인 사마천이 상고시대의 황제로부터 한 무제 태초연간(기원전 104~101년)까지의 2,600년에 걸친 중국 역사를 기록한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통사이다.



\*그림 \_ 중국교과서의 장성이 표시된 지도 → 장성이 고조선의 영토까지 축조된 것으로 확장·왜곡되어 있다.

## 부여사 문제

중국의  
주장

부여족은 한민족과 아무 관계 없는  
중국 고대 소수 민족 중의 하나였다



우리의  
입장

부여는 고대 한국 민족의 원류인  
예맥족이 세운 나라이다




**중**국은 부여족이 산둥山東 지역에서 발원하여, 일찍부터 중국에 신하로 예속됐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 문화 중 일부 또는 선비족의 문화라고 주장한다. 이는 부여와 한국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동북공정식 주장에 불과하다.

◎ 부여는 고조선·고구려·옥저·동예 등의 주류를 형성한 고대 한국 민족인 예맥족이 세운 나라이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三國志』에도 부여가 예맥의 땅에 있었고, 고구려를 맥인貊人 또는 예맥이라고 칭하면서, 언어와 법칙이 대체로 부여와 같은 부여별종夫餘別種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함경도 일대의 동옥저 사람을 예

민(濊民), 동해안 일대의 정치 세력을 예(濊)라 불렀고, 요동 지역에 고구려로 편입된 양맥(梁貊)이 있던 점에서 요동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예맥족이 토착족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 이들은 종족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자신들이 부여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했다. 고구려는 건국시조인 주몽이 부여로부터 내려왔다고 대내외에 표방했고, 백제도 427년 북위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부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백제의 왕족의 성은 부여씨·여씨·해씨였고, 성왕 때는 국호를 부여로 고치기까지 하였다.

◎ 고고학적으로도 부여사는 중국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 부여 지역에서는 중국 문화와 전혀 다른 서단산문화\*에서 대해맹유형\*, 포자연유형\*으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였다. 특히 서단산문화는 요동과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와 매우 유사하다.

◎ 이런 점들은 부여국이 우리의 고대 국가이고, 부여족이 고대 한국 민족인 예맥족으로, 분명한 한국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 \_  
기원전 10~4세기까지 제2송화강 중류 유역에서 발전한 청동기 문화이다.

\*대해맹유형(大海猛類型) \_  
기원전 3세기 서단산문화를 계승하여 제2송화강 중류 유역에서 발전한 초기 철기 문화이다.

\*포자연유형(泡子沿類型) \_  
기원전 2~기원후 3세기까지 제2송화강 중류 유역에서 발전한 철기 문화로, 부여의 문화를 가리킨다.

▼신수패식 ...부여의 특징적 유물



## 고구려사 문제

중국의  
주장

고구려는 중국 민족이 세운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우리의  
입장

고구려는 민족의 기원과 역사 계승 의식 모두  
중국과 별개인 우리의 자주 국가이다




**중** 국학자들은 민족의 기원이 국가와 역사의 귀속  
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다. 이에 입각하여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민족이 세웠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민족 기  
원을 예맥(濊貊)·부여(夫餘)·고이(高夷)·상인(商人)\*·염제족(炎帝  
族)에서 찾는다. 최근에는 이들 모두와 한족(漢族)이 결합  
해서 고구려를 구성했고, 그 중 한족이 중심이었다는 견  
해가 힘을 얻고 있다. 즉 예맥을 포함한 고구려의 구성  
원 모두가 중국의 고대 민족이었으므로, 고구려는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이다.

\*상인(商人) \_ 상나라 사람이란  
뜻으로, 은(殷)이라고도 불리  
는데,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는 상  
이란 국호를 더 많이 사용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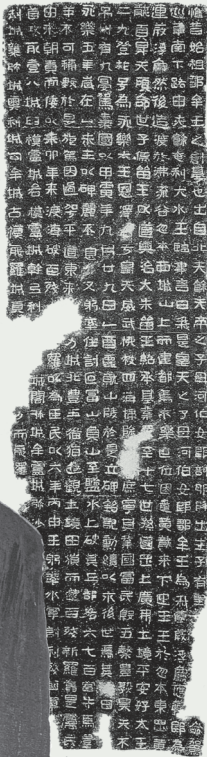
○ 그러나 여러 역사서에 고구려는 증원에서 건너온

민족이 아닌, 요동과 한반도 중북부 일대의 토착족인 예맥족이 세운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맥은 삼한의 한족(韓族)과 같은 동이족에 속한다.

◎ 그리고 민족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인들이 누구와 역사적 경험을 같이 했고, 자신들이 어느 나라를 계승하였다고 생각했는가 하는 점이다. 같은 중족이라 해도 동족 의식을 갖지 않고, 후세 사람들이 선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계승되지 않는다. 고구려 사람들은 스스로 중국인들과 별개의 존재라 여겼고, 신라인·백제인·동부여인은 자기들과 같은 천하에 사는 속민이라고 생각했다.

◎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은 서로 투쟁하고 교류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고 마침내 통합의 길로 나아갔다. 신라의 통일 의식, 발해, 후삼국, 고려의 성립은 고구려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 광개토대왕릉비

## 고구려사 문제

중국의  
주장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영토 안에서  
성립·발전·멸망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우리의  
입장

고구려는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건국 발전한 독립국이다



중국에서는 고구려가 한사군 중의 하나인 현도군 경내에서 건국되었고, 여러 번의 천도에도 불구하고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고구려는 현도군 경내에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현도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건국하였고, 나라를 세운 이후 한 번도 중국의 영토 안에 속했던 적이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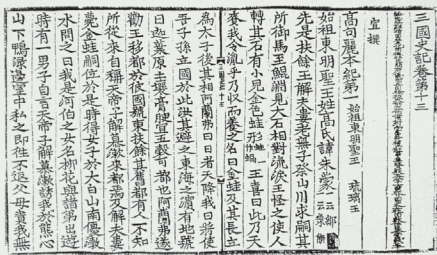


장군총 전경

■ 확실히 짚어 볼까요?

→ 고구려가 한사군과 별개인 독립국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료

- 『삼국지三國志』 : 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아 그 가운데 조북과 의책을 놓아두면 세시(歲時 : 설)에 와서 가져감 → 현도군과 고구려 사이에 경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 조북·의책을 놓아두면 와서 가져갔다는 것은 정치적 지배관계가 아니었으며, 고구려가 중국 영토 밖의 독립국이었음을 보여줌
- 『삼국사기』 :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기록들 → 고구려가 한사군의 영역 밖에 있음을 보여줌



\*그림 \_ 『삼국사기』의 주몽왕 건국 신화 부분

## 고구려사 문제

중국의  
주장

고구려는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지방정권이다




우리의  
입장

조공·책봉은 외교의 한 형식이자  
국제무역의 한 형태였다




**중** 국학자들은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朝貢)을 바치고  
**공** 책봉(冊封)을 받았으므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공·책봉은 전근대시기 동아시아  
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맺었던 외교관계의 형식이자,  
국제무역의 한 형태일 뿐, 명분과 실체가 서로 달랐다.

◎ 주변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중국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볼 때, 명분상·자구상의 조공·책봉 관  
계와 실제 상황을 구분해서 파악한다. 그런데 유독 고  
구려에 대해서만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 조공·책봉이 정착되는 남북조 시기에 고구려는 오히려 독자적으로 남조·북조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고구려는 두 왕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두 왕조와의 관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어느 왕조도 고구려에 제재를 가하거나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없었다. 이는 조공·책봉이 중국의 지방정권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약 조공·책봉 관계만으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간주한다면, 신라·백제·일본·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던 것이 된다. 



 **확실히 짚어 볼까요?**

...> **고구려사에 나타난 조공·책봉**

- 평양 천도 이전까지 고구려와 중국 사이에는 평화기간 보다는 전쟁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닌 독립국임을 증명함
- 평양 천도 이후 남조와 북조가 동시에 고구려왕을 책봉하였으나, 실질적인 신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의례행위에 지나지 않았음
- 중국은 수·당 통일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분열되어 있어 주변 국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조공·책봉은 구속력을 갖지 못했음

## 고구려사 문제

중국의  
주장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통일전쟁이다




우리의  
입장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동**북공정의 논리를 보면, 수·당의 고구려 침략을 중국 내부의 통일전쟁이자, 지방정권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수 문제·수 양제·당 태종이 고구려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운 조서의 내용을 비판없이 받아들여, 고구려가 수·당과의 신속 臣屬 관계를 깨뜨려 이를 응징하기 위해 고구려를 정벌했다며 고구려 침략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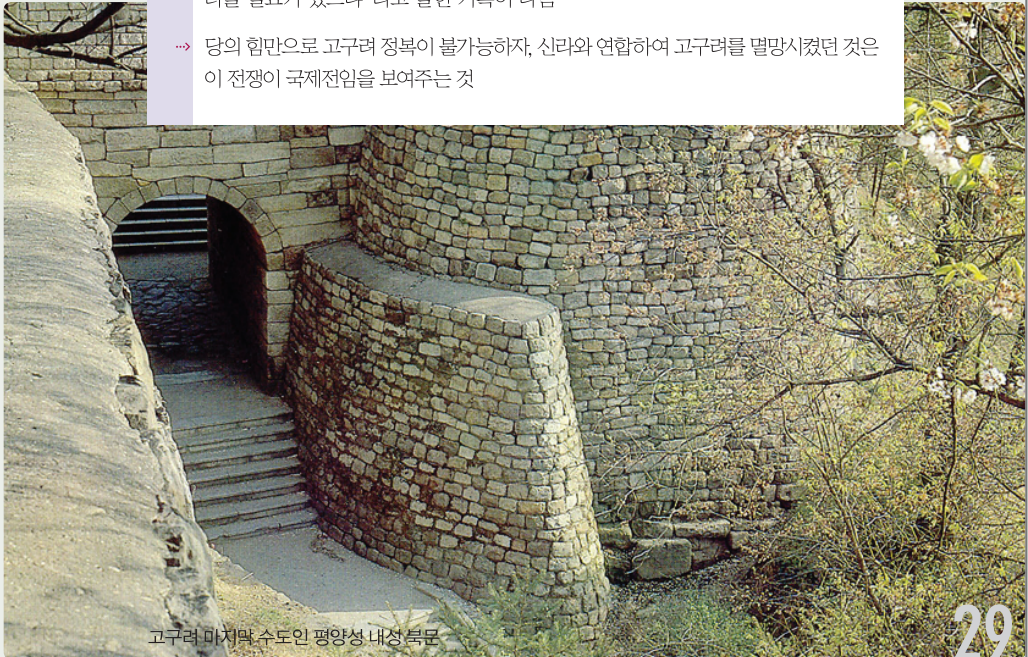
⊙ 그러나 수·당의 고구려 침략은 분명히 중원 통일 후 중화세계를 동아시아 일대에 완벽하게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수·당은 자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실현하려 했고,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를 지키려고 했으므로 상호 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두 세력권이 충돌하며 국제전이 벌어졌고,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확실히 짚어 볼까요?

→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며 국제전이었음을 증명하는 사실

- 수는 남북조를 통일한 후 중원 통일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했음 → 이는 고구려가 수의 지방정권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
- 『구당서』와 『신당서』에 “당 고조가 고구려와 당은 별개의 두 나라인데, 굳이 지배하려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한 기록이 나옴
- 당의 힘만으로 고구려 정복이 불가능하자,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것은 이 전쟁이 국제전임을 보여주는 것



고구려 마지택수도인 평양성 내성북문

## 고구려사 문제

중국의  
주장

고구려 유민 중 중국인이 된 사람이  
더 많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사다




우리의  
입장

역사 계승은 사람 수가 아닌,  
계승 의식과 부흥 의지로 평가된다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 유민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들어가 한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고구려 유민 중 2만 8천여 호나 되는 사람들은 당에 의해 중국 내지로 강제 이주되었고, 일부는 고구려 옛 땅에 남아 있다가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자 그 아래로 들어갔다. 일부 유민들은 당의 지배를 피해 돌궐로 도망가거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신라로 간 사람들도 많았다. 중국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7분의 1만이 신라로 내려가 한국인의 선조가 되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 되었으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역사계승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신라로 내려온 사람들은 삼국 간 교류를 통해 쌓은 동류의식에 바탕하여 신라를 선택했고, 고구려 부흥의지와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당과 신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당은 고구려 부흥을 막기 위해 유민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켰다. 반면 신라에서는 유민을 받아들여 보덕국\*을 세워주고, 삼국을 통일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도 계승했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 계승의식은 발해, 후삼국과 고려를 거쳐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보덕국 \_ 674년 안승(安勝)이 전라북도 익산 지방에 세운 고구려 부흥국으로, 683년에 폐지되었다.

▼나팔입 항아리→1988년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대표적 토기이다.



 확실히 짚어 볼까요?

...> 고구려사의 한국사 귀속을 입증하는 결정적 요소

- 고구려 부흥군의 활동
- 고구려 부흥국인 보덕국의 존재
- 삼국통일을 강조한 신라의 '일통삼한의식'
-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표방한 발해, 후고구려, 고려의 존재
- 고구려·백제·신라를 한국사로 정리한 역사서의 존재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이상국집』 등의 기록은 고구려사가 한국사로 귀속·계승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

## 고구려사 문제

중국의  
주장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입장

중국인들도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기록하였다




**중** 국학계에서는 고구려사와 한국사와의 계승관계  
를 차단하기 위해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와 왕건  
이 세운 고려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서로 계승관계가 없  
는 타국의 역사라고 한다. 고구려는 오늘날 중국인의  
선조가 세운 중국 역사상의 나라지만, 고려는 오늘날  
한국인의 선조인 신라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사宋史』 편찬자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라고 기록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  
류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국호로 나타  
냈고, 건국 초부터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평양)을 중시

하면서 북진정책을 추진했다. 고려 사람들은 고구려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희 장군이 거란장수 소손녕을 만나, 거란이 고려의 선조인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싸움도 하지 않고 거란군을 물리쳤던 일화는 고려 사람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잘 보여준다.

◎ 고려는 전왕조의 역사로서 고구려·백제·신라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사기』를 펴냈다. 고려 사람들에게는 고구려사가 고려의 선대 역사라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식은 역대 중국 역사학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바, 1345년에 편찬된 『송사』에 고구려-고려로 계승관계를 서술하였고, 이후 역사서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리고 중국 정사에서는 고구려사를 시종 본기가 아닌 외국열전에 실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조가 서술한 역사서까지 부정하면서 상식을 바꾸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고려, 즉 코리아(Korea)이다. 고려가 부흥시키고 계승한 국호를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계없는 다른 나라의 국호를 계승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고구려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사실은 코리아라는 국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것이다.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오녀산성 전경

## 발해사 문제

중국의  
주장

발해의 국호는 말갈국이었다



우리의  
입장

발해는 처음에는 진국, 이후에는  
고려 혹은 고려국이라고도 불렀다



**옛**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은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 698년 동모산(현재 중국 지린 성 둔화 시)에서 발해를 세우고, 진국왕振國王에 등극했다. 8세기 초 발해는 국가발전을 위해 당과 친선관계를 맺었고, 당도 정책을 바꾸어 발해를 인정하고 교섭을 하였다.

- ◎ 중국 사서인 『신당서』와 『구당서』에 “당 예종 2년(713)에 최흔崔訢을 보내 대조영을 좌효위원의외대장군, 발해군왕, 흘한주도독으로 삼았는데, 이때부터 말갈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발해라고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중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발해의 국호가 원래 말갈이었다고 주장한다. 최흔이 말갈사靺鞨使라는 직함을


\*홍려정비(鴻臚井碑) \_ 713년 발해를 방문하고 돌아가던 최흔이 오늘날 라오닝 성 뤼순 황금산 부근에 기념으로 만든 우물 옆에 세웠던 비석이다.

▼ 발해의 영광탑



가지고 갔다고 나오는 홍려정비\*도 근거로 들고 있다.

◎ 그러나 말갈사라고 한 것은 최흔이 방문한 발해의 수도가 말갈족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라는 의미일 뿐 발해의 국호였던 것은 아니다. 사실 ‘말갈’이나 ‘발해’는 당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호칭이다. 발해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를 처음에는 진국(震國·震國), 8세기 중반 경에는 고려 혹은 고려국이라고 불렀다. 발해는 727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여 고구려와 부여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758년 일본에 간 발해사신은 당시 왕인 문왕을 ‘고려국왕’이라고 했고, 이듬해 일본 조정이 문왕에게 보낸 국서에서도 문왕을 ‘고려국왕’이라 호칭했다. 발해인들도 ‘발해’라는 국호를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은 9세기 이후일 것이다.

◎ 이런 사료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에서 발해의 국호가 ‘말갈’이었다가 ‘발해’로 개칭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고구려와의 계승관계를 끊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왜곡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도 슬며시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중국측은 필요에 따라 논리를 바꾸고,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료만 선택하는 비역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발굴된 온돌 →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 확실히 짚어 볼까요?

...> 발해가 독립국가였던 분명한 증거

- 발해는 인안을 비롯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
- 전왕(前王)에 대한 시호를 스스로 정하고, 문왕은 자신을 대왕·성인·황상(皇上)이라 함
- 당으로부터 새롭게 책봉받기 전에 신임 왕이 국정을 담당함
- 당나라가 외국인을 위해 실시한 과거시험인 빈공과(賓貢科)에 발해인이 응시하여 급제
-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천손(天孫)이라 하고, 주변의 말갈족을 번국(藩國)으로 여겼음

## 발해사 문제

중국의  
주장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우리의  
입장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하며,  
자주 독립 국가로서 성장 발전하였다



### ▼ 발해의 석등



**중** 국학계에서는 발해왕이 발해군왕으로 책봉받고, 흘한주도독이 된 것을 근거로,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공·책봉은 명분과 실제가 다른 진군대 시기 외교관계의 한 형식일 뿐이다.

- ◎ 발해가 당의 속국이나 지방정권이 아닌 자주 독립 국가였다는 것은, 독자적인 연호와 시호의 사용, 하늘의 자손이라 칭한 점, 황제라고 자처한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에서도 당연히 발해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나라의 과거 시험인 민공과(賓貢科)에 발해인들이 응시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주장


발해사는 중국 당나라 역사의 일부로서,  
한국사가 아니다

우리의  
입장

발해는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시대를 이룬,  
한국사의 일부이다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 계승국이라 자처했고, 고구려 국왕이라 했다. 고구려 유민, 즉 고구려의 인적자원을 승계했고, 고구려의 영토 위에 건국했다. 지금까지의 유적 발굴성과를 통해 보면, 성곽의 축조술, 온돌 등의 주거시설, 석축묘 등의 묘제, 사찰·탑·궁전 등의 건축, 토기, 철제 무기류와 생활용구 등 전반적인 면에서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발해 역사는 한국사에서 계승되고 있다. 신라에서는 발해를 북국이라 불렀고, 신라와 발해가 병립했던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발해가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때도 발해 유민의 일부는 거란의 지배를 거부하고 고려왕조로 들어왔다. 고려 역시 발해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이들 발해유민들과 함께 발해의 역사도 한국사에 계승되고 있다. 중국의 역대사서에서도 발해사를 고구려사와 마찬가지로 외국열전에 수록하며, 발해를 중국과 별개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 국경 문제

중국의  
주장

백두산정계비는 원래 소백산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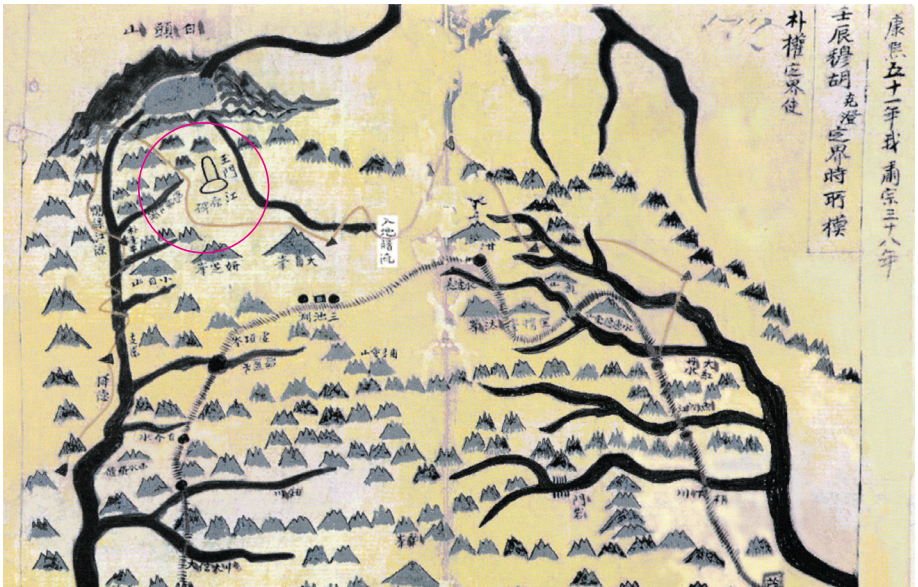
우리의  
입장

백두산정계비는 세워질 때부터 1931년까지  
백두산 기슭에 있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정계비\*를 소백산에서 백두산으로 옮겼다는 ‘정계비 이동설’을 주장하여 국경 문제에 새로운 파문을 던지고 있다. ‘정계비 이동설’에 따르면 당시의 기록과 지형·경계 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두만강이 시작하는 지류는 홍단수紅丹水\*이고 백두산정계비의 원래 위치는 소백산 정상이다. 정계비 건립 직후 조선측 관리들이 정계비를 백두산 남쪽 기슭으로 옮기고 정계비와 토문강 사이에 목책·물무더기·흙무더기 같은 경계 표지를 설치하여 경계를 조작하였다고 한다. 19세기 이래 국경회담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했음을 생각할 때, 이 논리 대





▲ 「백두산정계비도」에 표시된 정계비 위치 (1712년) ▼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정계비 위치 (1861년)



## 국경 문제

중국의  
주장

오랜 옛날부터 백두산이 아니라 중국의 산,  
창바이산(長白山)이다



우리의  
입장

백두산은 한·중 공동의 유산이다



중국에서는 2005년 지린 성 직속 '창바이산보호  
개발관리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창바이산 관광  
자원 개발과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창바이산 일대는 1986년 이래 '국가급자연보호구(國家  
級自然保護區)'로 지정·관리되었으나, 2005년 이후 중앙  
정부와 성정부의 협력 아래 창바이산을 '중국국가자연  
유산'에 올리고 창바이산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창  
바이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공항·철도·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창바이산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창바이  
산 인삼', '창바이산 광천수', 고속열차 '창바이산호'와

같이 창바이산 명칭의 브랜드화에 앞장섰다. 나아가 중국에서는 ‘창바이산 문화론’을 통하여 창바이산 일대는 중국 고인류가 발생하고 중원왕조의 지배 아래 여러 민족들이 살아온 중국의 영역이며, 이들 민족들의 교류·융합을 통하여 형성된 창바이산 문화는 중화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 중국에서 21세기 들어 새삼 창바이산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창바이산 문화론’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2003년부터 본격화된 ‘동북진흥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동북지역 국유기업이 노후화되어 지역간 격차와 불균등이 심화되자, 중앙정부에서는 동북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로써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였다. 국유기업 개조, 산업구조 선진화, 대내외 개방 확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은 ‘동북진흥전략’은 동북지역을 새로운 산업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자금 및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인적 요소의 동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창바이산 문화론’은 인적 요소의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창바이산 문화론’은 동북지역 사람들을 중화민족의 일원이자 경제개발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대외적으로 ‘창바이산 문화론’은 백두산 또는 창바이산으로 불려온 산에 대한 역사적인 관할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두산/창바이산은 약 1천 여 년 동안 양국이 공유해 온 공동의 유산이었다. 한국에서 백두산 명칭이 처음 출현한 것은 10세기 말이다. 『고려사高麗史』에 “압록강 밖의 여진족을 쫓아내어 백두산 바깥쪽에서 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백두산을 ‘나라의 조종산祖宗山’이자 ‘왕조의 발상지’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 중국에서 창바이산 명칭이 등장한 것은 11세기 초이다. 『거란국지契丹國志』에 “장백산은 냉산冷山 동남쪽 천여 리에 있다”라고

**\*간도협약** \_ 러·일전쟁 직후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문제에 개입한 일본이 1909년 청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 제1조에 “중·일 양국 정부는 두만강을 중·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原)지역은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경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다. 간도협약으로 일본은 만주점령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는 실패했지만, 간도조선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조중변계조약** \_ 1962년 중국과 북한이 맺은 국경조약이다. 이조약으로 백두산 천지의 분할 및 압록강·두만강 상·하류의 분할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고, 1964년 ‘중·조 변계의 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국경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변계의 정서에 따라 백두산 천지는 북한이 55%, 중국이 45%를 차지하였고, 압록강·두만강 상의 섬과 사주(沙洲)는 북한 264개, 중국 187개를 차지하였다.

기록하고 있으며, 금나라 때부터 ‘왕조의 발상지’로 간주하여 제사를 지냈고, 청나라 때에는 장백산신(長白山神)으로 봉하고 제사를 지냈다.

◎ 이처럼 백두산/장바이산은 양국이 공유해 왔으며, 15세기 이래 양국이 경계로 삼은 산이었다. 1712년 조선과 청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백두산정계비를 백두산 동남쪽 기슭에 세웠을 때에도, 1909년 ‘간도협약’\*으로 백두산정계비와 석을수(石乙水)를 경계로 한다고 확정되었을 때에도, 1962년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중변계조약’\*으로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 천지를 55:45로 분할했을 때에도 백두산/장바이산은 어느 한쪽에 귀속된 산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하는 산이었다. 





5

동북공정 관련 현재 상황

## 5

## 동북공정 관련 현재 상황

동북공정은 2007년 초 5년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동북공정의 결과물들이 사업기간 중에 책으로 출간되었거나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책에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담겨있다. 한번 세상에 나온 역사서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은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지속될 문제인 것이다. 또한 동북공정은 다른 형태로 계속 파급되고 있다. 동북공정 관련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정부의 기관이나 대학으로 옮겨가 '동북공정식' 인식을 담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지린 성에는 '지린 성 고구려 연구중심', '고구려 연구기지', '고구려 연구원', '고구려·동북민족 연구중심' 등 여러 기관이 설립되었고, 랴오닝 성에는 '중국 동북사 연구중심'이 만들어졌다. 이 연구기관들에서는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 우리 고대사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부 중국학계에서는 동북공정에서 제시했던 논리를 보완하고 심화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전에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던 중국 학자들은 다른 나라의 연구 성과를 거의 보지 않았고, 우리의 『삼국사기』는 물론 외국 사서

의 사료를 참고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사료만 자국 사서에서 골라 선연식 주장을 내세우는 행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사서와 연구 성과도 분석·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지역적 분포가 넓어졌고, 새로운 연구자들도 급속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동북 3성 지역의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동북공정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동북 지역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동북공정을 계기로 고구려사를 비롯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연구물의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향상, 연구자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구물들은 여러 학술잡지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민들에게도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전파되고 있다. 고구려·발해유적지의 안내판이나, 박물관 안내문, 대학교재 등에는 이미 ‘동북공정식’ 인식과 논리가 반영되었다. 200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지린 성 위원회가 건의하여 통과된 ‘지린 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에는 ‘중화명산 장백산’, ‘세계 문화유산 지안 고구려 유적’ 등 지린 성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관련 유적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표지판 등을 통해 ‘동북공정식’ 인식이 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 갈등에 대해 잘 모르는 중국인들이 많지만, 동북공정 이후 이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과 네티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역사적 근거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자민족 중심주의 경향을 드러내거나, 더 나아가 이를 혐한류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향후 한·중간 역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역사 전문가들의 손을 떠나 일반인들에게 확산된 동북공정은 비학문적,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학문분야에서의 내용전개에 관계없이 자기분열을 일으키며 중국인들에게 잘못된 한국사관, 동아시아 역사관, 세계사관을 고착시킬 수 있다. 이것은 역사 전문가들끼리의 논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이미 출간되었거나 앞으로 출간될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북공정식'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 세계 사람들이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의 역사가 한국사에 귀속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심화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 학계가 연구를 선도해 나가면서 중국 측의 자의적인 역사해석에 대해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오류를 시정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고구려사뿐 아니라 고조선, 발해사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겉으로 보면 동북공정 이후 이 분야의 연구자가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신진연구자의 수는 별로 늘지 않았다. 중국에서 신진연구자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신진연구자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넷째,** 우리의 연구 성과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한국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외국인들의 경우 중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 성과를 제3국에 많이 제공하여 올바른 동아시아 역사관이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장하여 세계인들과 교류하게 될 때, 우리의 역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정체성 상실은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지만, 정체성 재정립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역사지킴이에는 외교적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 역사왜곡은 학술 견해의 차이인 동시에 국가 간의 외교문제이다. 동북공정 자체가 학문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만큼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분쟁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인 만큼 긴 호흡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 국민 모두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부여사가 왜 한국사인지, 그 역사와 문화가 한국사에 어떻게 계승되어 오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채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역사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협력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6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과  
연구 결과물

7

동북공정 주요 일지



# 6

##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과 연구 결과물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http://chinaborderland.cass.cn>)의 ‘동북공정 소개東北工程簡介’를 보면, 동북공정의 과제는 ‘연구류’, ‘번역류’, ‘공문서 자료류’로 분류된다.

- 먼저 연구류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있다. 기초연구란 역사상의 학문적 이론 연구를 의미하고, 응용연구란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발해 등 특정 역사와 강역의 귀속 문제, 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국경·영토 분쟁, 외교 관계, 문화 관광 전략 등 현실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포함된다.
- 번역류는 남북한·러시아·일본·서양 연구성과의 번역, 러시아 학자의 극동지역 역사지리 연구논저 요약, 남북한 학자의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 고고지리 연구논저

요약, 남북학자의 한중관계사 논점의 번역과 평론을 포함한다.

- ◎ 공문서 자료류는 동북변강 관련 공문서 사료 정리, 『동북변강』잡지편찬, 한·중, 중·러, 중·몽관계 공문서 목록정리, 동북변강 역사지도 수집정리 및 연구, 동북변강 관련 사진의 수집 정리 및 연구가 있다.
- ◎ 동북공정 과제 수행을 위한 지침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의 강역에 대한 이론 연구,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한중 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 안정에 대한 전략적 연구, 한반도 형세 변화가 중국 동북변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우리의 고대사에서부터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총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이러한 지침에 따라 2002년에 27개 과제, 2003년 15개 과제, 2004년 6개 과제의 기초연구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응용연구 비롯하여 번역류 14개 과제, 공문서 자료류 4개 과제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동북공정 홈페이지인 ‘중국 변강재선中國邊疆在線(www.chinaborderland.com)’에 이미 공개된 선정 과제들은 고구려 사뿐만 아니라 발해사, 고조선사를 비롯하여 간도 및 한중 국경문제 등 우리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 지금까지 동북공정 과제의 연구 결과로 모두 19책이 발간되었다.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직영 출판사인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동북변강연구총서’ 시리즈로 『고대 중국고구려사 속론』을 비롯한 9권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길림인민출판사에서 『간명고구

려사』를 비롯한 6종 8책이 발간되었다. 이외에 홍콩아주출판사에서 『당대발해국오경연구』, 흑룡강인민출판사에서 『이십세기중국동북변강문화연구』가 출간되었다. 이로 보아 현재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수합한 연구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도 각 지역 출판사에서 개인 학자들의 연구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7

## 동북공정 주요 일지

### 2002

- 동북공정 출범      • 고구려·발해·고조선·백두산 등 연구과제 선정
- 광개토태왕비 등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신청

- 1~2월
  - 동북공정 영도소조와 전문가위원회 구성
  - 1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베이징)
  - 동북공정 정식 출범
- 4월
  - 고구려역사연구 학술좌담회 개최(지린 성 창춘)
  - 2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베이징), 고구려·발해·고조선·백두산 등 연구과제 선정
- 7월
  - ‘제2기 동북강역의 역사와 현상 및 고구려학술토론회’ 개최(지린 성 창춘·통화)
    - 1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70여 편의 논문 발표

### 2003

- 『고대중국고구려역사속론』 등 동북변강총서 6권 발간
- 고구려·발해·고조선·간도 등 연구과제 선정
- 고구려 유적 정비, 중국사의 일부로서 박물관 전시 개편 및 유적 설명판 설치

- 8월
  - 3차 전문가회의 개최(헤이룽장 성 헤이허) - 고구려·발해·고조선·간도 등 연구과제 선정
  - ‘고구려발해문제 학술토론회’ 개최(지린 성 연지) - 25명의 전문가 참석
- 10월
  - ‘고구려 국내성 천도 2000주년 및 3차 전국 고구려 학술토론회’ 개최(지린 성 지안)

## 2004

-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 발해 · 고려 · 간도 · 백두산 등 연구과제 선정

- 7월 | ●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 8월 | ● ‘고구려역사문제연구토론회’ 개최(연지) - 5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중국 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 방한 - 우리 정부와 구두 양해사항 합의
- 12월 | ●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가치’ 한중학술회의 개최(베이징)  
-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 2005

- 8월 | ● ‘고구려역사문제 학술연구토론회’ 개최(연지) - 3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10월 | ●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한중학술회의 개최(수원)  
-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 2006

- 『발해국사, 등 동북변강총서 3권 발간

- 6월 | ● ‘당조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지 보호조례’ 헤이룽장성 상무위원회의 심의 통과  
-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8-9월 | ● 『발해국사』 등 동북변강총서 3권 발간  
● ‘고구려문제 학술연구 토론회’ 개최(연지)
- 10월 | ● 한 · 중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 원자바오 총리, 2004년의 구두 양해 사항 존중입장 표명 / 후진타오 주석, 2004년 구두 양해 사항 이행 약속

## 2007

- 3월
  -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사지연구중심, 연지대학에 동북변강지구 국경 조연기지(東北邊疆地區國情調研基地) 설립
- 4월
  - 한·중 정상회담 개최(서울) - 원자바오 총리, "영토·역사문제는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6월
  - 중국, '고려 태조 왕건은 한반도 토착 신라인의 자손이 아니라 한족(漢族)의 후예였다'라는 논문 발표
- 7월
  - '동북아 변경역사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일본 후쿠오카)  
- 일본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와 미국한국명의회 공동 주최
- 9월
  - 중국, '고구려 28대 국왕의 왕릉 모두가 지안에 있다'라는 논문 발표
- 10월
  - 통화사범대학 고구려문화연구기지와 연지대학의 발해문화연구기지가 지린 성 중점연구기지로 확정
- 11월
  - 중국 신화연구자, '단군신화가 황제(黃帝) 집단의 곰 토템에서 기원했다'라는 주장 제기
- 12월
  - 발해 중경성의 발굴보고서 「서고성-발해국 중경현덕부 고지 전야 고고 보고(西古城-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발간
  - 한·중 총리회담 개최(베이징) - 역사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적극 교류하기로 함
  - '고구려 초기 역사 연구' 한중학술회의 개최(베이징)  
-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 중국, 「고구려 왕릉 통고(高句麗王陵通考)」 발간

## 2008

- 7월
  - 중국, 「당대 발해국 오경 연구(唐代渤海國五京研究)」 발간
- 8월
  -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 개최(밴쿠버) - 국제고려학회 주최
- 9월
  - 중국, 「간명고구려사(簡明高句麗史)」· 「중국 역대 조공제도 연구(中國歷代朝貢制度研究)」· 「중국고대 치리 동북변강 사상 연구(中國古代治理東北邊疆思想研究)」 등 6종 8책 발간
  - '동북아관계사의 성격' 한중학술회의 개최(서울) - 동북아역사재단과 베이징대학 공동주최
- 11월
  - '졸본시기의 고구려역사 연구' 한중학술회의 개최(제주도)  
-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 참고문헌

### 저서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고조선·단군·부여』,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의 東北邊疆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국사편찬위원회, 2004,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 국사편찬위원회.
- 노태돈 편저, 2000, 『단군과 고조선사』, 세계절.
- 최광식,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사원지 발굴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의 한국 고대사 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신종원 역음·주상길 옮김, 2005, 『중국인들의 고구려 연구-동북공정의 논리』,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개석 외, 2005,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 정진현 외, 2005,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 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6,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6,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회, 2006, 『중국 동북공정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발표문).
- 박용운, 2006,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 여호규 외, 2006,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윤취탁, 2006,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 이인철, 2006, 『중국의 고구려연구』, 백산자료원.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정진현 외, 2005,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 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2006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박대재 외, 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 안병우 외, 2007, 『중국의 변강 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 출판부.
- 한규철 외, 2007, 『발해 5경과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 박명희 외, 2008, 『근현대 전환기 중화위식의 지속과 변용』, 단국대출판부.
- (사) 고구려연구회 편, 2008,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 신주백 외, 2008, 『중국 대학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 연민수 외, 2008,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 외, 2008,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임상선 외, 2008,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 정병준 외, 2008,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 『동아시아속의 渤海와 日本』, 경인문화사.

## 참고문헌

### 논문

- 박한설, 1999,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繼承意識」,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 학연문화사.
- 김은국, 2000, 「신라도를 통해 본 발해와 신라관계」, 『통일신라의 대외관계와 사상연구』.
- 오강원, 2000, 「西團山文化的 圏域에 관한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33.
- 여호규, 2002, 「고구려 초기의 양맥과 소수맥」, 『한국고대사연구』 25.
- 임기환, 2002, 「南北朝期 韓中 冊封·朝貢 관계의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32.
- 이인철, 2003, 「중국의 고구려사편입과 한국의 대응전략」, 『白山學報』 67.
- 한규철, 2003, 「渤海 國號 賜與論 批判」, 『文化傳統論集』특별호 1집.
- 김종완, 2004, 「高句麗의 朝貢과 冊封의 性格」, 『高句麗研究』 18.
- 김현숙, 2004,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유민의 거주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3.
- 박경철, 2004,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수·당 70년 전쟁 인식의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33집.
- 박한설, 2004,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연구』 18.
- 안병우, 2004,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 『한국고대사연구』 33.
- 최광식, 2004,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고구려사 연구동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3.
- 박양진, 2005, 「고고학에서 본 부여」, 『한국고대사연구』 37.
- 박용운, 2005, 「고려시기 사람들의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북방사논총』 2호.
- 박용운, 2005,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동북아시아사람들의 이해」, 『북방사논총』 7호.
- 송기호, 2005, 「부여사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 이기동, 2005, 「한국민족사에서 본 부여」, 『한국고대사연구』 37.

- 박양진, 2005, 「고고학에서 본 부여」, 『한국고대사연구』 37.
- 송기호, 2005, 「부여사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 임기환, 2006,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역사학계의 대응-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史林』 26.
- 조법중, 2006,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검토-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25.
- 기수연, 2007, 「中國學界 '高句麗'와 高句麗의 商人, 炎黃後裔說에 대한 비판적 고찰」, 『高句麗研究』 27.
- 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대구사학』 89.
- 박인호, 2007, 「전통시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고구려인식」, 『韓國史學史學報』 15.
- 송호정, 2007, 「高句麗의 族源과 濊貊」, 『高句麗研究』 27.
- 여호규, 2007,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 이종수, 2007, 「中國의 夫餘史 認識과 研究現況 檢討」, 『高句麗研究』 28.
- 김중성 외, 2008, 「동북공정에 관한 한·중 언론의 보도태도」, 『士林』 30.
- 박양진, 2008, 「중국 역사공정의 비판적 검토-하상주 단대공정과 중화문명탐원공정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 82.
- 조법중, 2008,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 79.
- 崔珍烈, 2008, 「東晉·南北朝~唐代 주변국 册封 封號의 地名 분석-韓國古代 三國君主들의 册封 郡王/郡公 칭호의 이해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97.

# 찾아보기

## ㄱ

간도문제 42  
 간도협약 46  
 거란국지 45  
 고무려 28, 30, 39  
 고무려사 22  
 고려 31  
 고려사 45  
 고이 22  
 고인돌 17  
 고조선 18  
 구당서 29, 35  
 국가급자연보호구 44  
 국가주의역사관 11  
 국가주의(중화우월주의) 14  
 기자 16  
 기자조선 16

## ㄴ

남북국시대 39

## ㄷ

단군왕검 17  
 단군조선 17  
 대동여지도 44  
 대조영 30, 35  
 대해맹유형 21  
 동북공정 6, 10, 12, 48  
 동북변강 53  
 동북3성 10  
 동북진흥전략 45  
 동이족 23

## ㄹ

미승리식 토기 17

## ㅂ

발해 31, 39  
 백두산 45  
 백두산정계비 41  
 백두산정계비도 42  
 보덕국 31  
 부여 22  
 부여족 20  
 비파형동검 17  
 빈공과 38

## ㅅ

사기 18  
 사기정의 18  
 삼국사기 20, 25, 34  
 삼국유사 17  
 삼국지 25  
 상서대전 16  
 상인 22  
 서단산문화 21  
 서희 34  
 소손녕 34  
 송사 33  
 신당서 29, 35

## ㅇ

염제족 22  
 영광탑 37  
 예맥 22  
 예맥족 20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44  
 일연 17  
 일통삼한의식 31  
 위만조선 16

## ㅈ

장성 18  
 정계비 이동설 41, 42  
 조공 26, 38  
 조공·책봉관계 14  
 조중변계조약 46  
 주몽 21  
 중군변강재선 53  
 중국사회과학원 10, 52  
 지방정권 24  
 진국 36  
 진 시황제 18  
 집안박물관 13

## ㅊ

창바이산 44  
 창바이산 문화론 45  
 창바이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 44  
 책봉 26, 38

## ㅋ

코리아 34

## ㅌ

통일적다민족국가론 11, 14

## ㅍ

포자연유형 21

## ㅎ

한사군 16  
 한·중간 구두양해사항 7  
 흥단수 41  
 흥려정비 36  
 후삼국 31